

교육과 施設과 貧民窟에

[別乾坤] (1929년 10월호)

(註: 別乾坤社가 要請한 "京城에 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란
題目的 앙케이트에 대한 答文임)

나도 시골사람으로 서울에 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기는 未安하지마는 나는 언제나 根本적으로 시골사람이 서울 오는 것을 不贊成한다. 시골 사람이라도 무슨 特別한 일이라든지 主義가 있어서 서울을 구경한다면 已어니와 그렇지 않고 다만 風潮에 달려서 外形의 繁華한 것이라든지 奢侈한 것만 取하여 구경한다면 그야말로 盲者丹青 구경 以上으로 所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虛榮心 奢侈心만 늘어서 如干한 惡影響을 입지 않을 것이다. 實際에 시골사람들이 都會에 誘惑되어 자꾸 都會로 集中하려 하고 또 近來에는 農村의 生活困難, 其他 어떠한 一時的 機會로 因하여 一個月에 몇千 몇萬의 시골사람들이 서울로 온대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그런데 既往 서울을 오게 되면 나는 이러한 말을 부탁하고 싶다. 卽 京城은 道路의 開通, 市街의 櫛比, 建築의 宏大 그러한 모든 施設이 完備하고 外面이 변화한 反面에는 참으로 形言할 수 없는 貧民窟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只今 朝鮮에 있어서 어느 地方에 貧民窟이 없는 곳이 없지마는 서울의 貧民처럼 慘酷한 現狀은 없을 것이다. 진고개와 鍾路같은 繁華地를 보는 同時에 新堂里 孔德里 같은 貧民窟을 보아 어찌하면 저런 사람들도 잘 살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施設보다도 朝鮮人의 一般 教育施設을 잘 살피서 教育의 必要를 確信하는 同時에 子弟를 많이 學校에 보내서 有爲人物을 많이 養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한다.